

100여점 대작에 담긴 40년 예술혼 결실

국립군산대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 정년 퇴임 기념전 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개최

전북을 대표하는 여류 화가이자 국립군산대 학교 미술대학 김정숙 교수가 정년을 맞아 자신의 예술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시절 인연-축복'이라는 주제로, 40여 년간 화폭에 담은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 개막식은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100여 점의 대작 작품을 선보인다. 20대 청춘 시절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구성된 작품들은 한 여성 예술가가 삶의 기쁨과 아픔을 어떻게 색채와 형태로 승화시켜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작품마다 배어 있는 따뜻한 온기와 깊이 있는 감성은 바쁜 일상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로를 건넨다. 한 점 한 점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삶 자체가 응축된 기록이자 치유의 메시지다.

김정숙 교수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19살에 원광대학교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조교와 시간 강사를 거쳐 30여 년을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학생들과 연구, 그리고 작업 속에 있었죠. 그렇게 쌓인 시간이 어느새 작품으로 남아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이어 "장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봉우리(K2)를 향한 또 하나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더욱 자유롭게 담담하게 작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정숙 정년 퇴임 기념전 포스터

전시장에는 특별한 감동이 더해졌다. 남편인 이동환 전북대학교 교수가 '인생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예술 인생을 축복하는 시를 썼다.

"여러 날 켜켜이 쌓인 시간의 그림자가 거울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 보이는 것을 비우는 삶의 여정을 지나, 이제 새로운 여백으로 돌아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구는 한 예술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의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과 국내에서 38회의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7회를 포함해 한국미술협회 미술인상, 동서미술상, 하림예술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국제 참예술인 대상 등 굵직한 상을 받으며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의 행보다.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북 여류화가협회 회장, 전문직 여성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아동 미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 미술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의 저서를 통해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이번 전시는 한 예술가가 40년 넘게 걸은 시간과 그 속에 담긴 감사, 축복, 성찰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관람객들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에서 시작한 한 화가의 꾸준한 예술적 날갯짓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울림을 남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장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의 말처럼, 김정숙 교수의 예술 여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 예술가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만나고 싶다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3층 전시실을 찾아보자.

/이만호 기자

완주 남계리 백자사발지석, 국립전주박물관서 첫 공개

안중군 특별전 윤지충 · 권상연 백자사발지석 2점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군 쓰다'에서 완주군 남계리 유적에서 출토된 윤지충 · 권상연 백자사발지석(磁石) 2점이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전은 내년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완주 남계리 유적에서 2021년 발굴된 백자사발지석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의미 있는 자리다.

백자사발지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인 윤지충(1759~1791)과 권상연(1751~1791)의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물로, 사발 내부에 피장자의 이름과 기록이 묵서(墨書)로 남아 있어 탁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순교자의 실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 완형에 가까운 보존 상태 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시 담당자는 "이번 특별전에서 소개되는 백자사발지석은 조선 후기 천

주교 순교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라며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은 신앙인이었던 안중군 의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독립 정신과도 깊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자사발지석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 · 항쟁 · 정신'의 역사적 흐름은 관람객들이 안중군 정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초남이섬지 내 완주 남계리유적의 국가 사적 승격 추진,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연계 전략 강화, 지역 천주교 초기 공동체 유산의 교육 · 체험 프로그램 확대, 전북 지역 국가기관과의 협력 사업 고도화 등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 '대한민국 안중군 쓰다'는 안중군 의사가 남긴 서예 작품과 관련 자료를



권상연 아고보 백자사발지석 명문

통해 그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재조명하는 전시다. 완주군의 백자사발지석은 전시 내 '신앙과 민족정신의 뿌리' 색선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서 즐기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파티'

군산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 활성화와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7시, 군산비어포트에서 '2025 군산 캐롤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성적인 겨울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재즈 공연, 마술, 케이터링, 관광 퀴즈, 음악 행사 등을 결합한 체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참여는 타 지역 관광객 100명을 대상으로,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행사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겨울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모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산타가 방문하는 관광명소 배송지 찾기, 산타의 캐롤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벤트 성공자에게는 수제맥주 교환 쿠폰이 제공되며, 게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 수제맥주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핑거푸드 케이터링을 제공하고 K-관광섬과 연계한 지역특화 디지털 2종(토크 카라멜 바, 썬빵빵)까지 시식 체험이 이어진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원카드를 크리스마스트리에 부착하는 '나 이루어질지니~ Wish in gursan'을 통해 군산의 겨울밤을 한층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로 지역 자원인 수제맥주와 연계한 새로운 겨울철 특화 콘텐츠 제공, 야간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참가비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1인당 1만2,250원으로 프로그램 신청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인스타그램) 및 게시글 내 정보인식부호(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일 · 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5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2025년 일 · 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 ·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관)들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된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재단은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55개소를 지원했으며, 이 중 43개소(78%)가 인증을 획득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기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올해 신규 인증 공공기관 9개소 중 8개소(89%)가 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획득해 공공부문에서도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견인하는 성과를 입증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2025년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기업 맞춤형 일 · 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일 · 생활균형 정책 활용 컨설팅 186개 기업 대상 운영, '금요일에 만나요' 워라벨 주간행사, 워라벨 경진대회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2026년 사업 방향, 기업 수요 기반 지원 확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2)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콘소리가 나자 마을회관 문이 열리고 박대우를 따르는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장님의 말이 틀림 말이 하나도 없는 데, 아저씨는 왜 그러세요? 굿은 그만 뒤야 한다고요!"

청년들이 입을 맞춘 듯 박규환을 닦달했다. 박규환이 짊어지고 있는 무구와 장구를 빼앗으려 했다. 박규환은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지만 힘 있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빼앗는 통에 버틸 수가 없었다.

"어서 돌아가세요. 이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이 자리에 있다가는 무구와 악기를 빼앗기는 것을 떠나 청년들에게 두들겨 맞지나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명회 아버지, 돌아가요……."

박규환과 연기택은 슬슬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박규환은 박대우와 청년들의 행동에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녔다.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닐까요?"

연기택이 검먹은 눈을 싸리문 밖으로 보내며 말했다.

"대우, 그 녀석도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겠어?"

박규환은 한숨을 내쉬다가 집을 나섰다. 연기택이 어디를 가냐 묻자, 강병도에게 간다고 말했다. 연기택도 같이 가지며 박규환을 따라나섰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던 말이야!"

박규환의 말을 들은 강병도는 자신이 망신을 당한 것처럼 주먹을 쥐고는 부르르 떨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겉으로는 당골래를 천시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집안대소사에 필요할 때는 꼭 당골래를 찾았다. 당골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였고, 그래서 들어내지 않았지만 보호의 대상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걸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기 도 그렇고 말아야. 후유……."

"황전에서는 박대우가 하는 일들을 다들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무슨 회의라고해서 나가서 들 어봤더니 글썽, 봉림 사람들을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연기택이 슬며시 끼어들었다. 눈들이 연기택에게 모아졌다.

"여기 봉림에는 면서기 하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남도 있고, 경찰, 군인도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며 권력을 쥔 자들이고 일제에 복무한 친일세력이라 타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나 친일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박규환은 강병도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강병도 가족은 봉림 마을 사람이지만 친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마을과 마을이 너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기 마을 사람들도 황전을 공산당 마을이라고 앞잡아보고 말아야."

네 사람은 한동안 천장이 내려앉도록 긴 한숨만을 내쉬었다.

"그나저나 굿을 못하게 하면 우린 어찌지요?"

"고창의 온 동네가 굿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소. 황전만 못하는 거지."

"양반도 상놈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말하자면 다 같은 우리민족이고, 또 우리가 하는 굿은 모두를 아울러서 힘들 때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행위 아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말이지.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타파하려 들다니……."

그때 밖에서 누군가 왔는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동택은 안방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용대였다. 정읍공업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제 강점기 때 육군에 자원하여 함흥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이전해 12월에 육군 오장으로 만기 제대한 뒤 재소집되어 평양 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딸이 둘 있었다. 강병도와는 오촌 관계다.

남원시립국악단, 송년 민속악공연 '온고지신' 개최

남원시는 청아원에서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과 13일 14시에 2025년 남원시립국악단 송년 민속악공연 '온고지신'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민들에게 전통의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연말 위로 무대로 남원이 시민에게 건네는 문화적 연말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연은 무료로 전 연령 관람이 가능하며 남원시립국악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온고지신'은 전통이 지닌 고유한 정신을 다 시금 되새기고, 선인들이 남긴 민속악의 숨결을 오늘의 감성으로 잇기 위해 기획되었다. 소리광대 이승민 · 김도희가 극적 해학과 현장감을 더해 공연 전체의 흐름을 이끈다.

국립민속국악원, 20일 송년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2025 송년공연 '단막창극 다섯바탕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전통 창극의 정수를 선보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의 대표 눈대목을 단막 형식으로 구성해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개되고, 작품별 특색을 살린 연출과 관객과 가까운 무대 배치를 통해 몰입도를 높였으며, 창극단 · 기악단 · 무용단 등 총 49명의 출연진이 참여한다.

주요 장면은 △심청가 '황성 올라가는 대목'

태평소와 관현악으로 문을 열고,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청의 바다는 즉흥성과 자유로운 연주가 특징인 시나위에 구음과 살풀이를 더한 '구음 시나위'가 이어지며, 이후 노동하는 삶을 담은 방아타령, 줄 끄는 소리, 사랑 · 이별 · 그리움 · 고난 등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구성시켜 표현한 △육자배기가 무대를 채운다.

마지막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가 우아하고 절제된 춤사위 속에 내면의 힘과 장중함이 깃든채, 전통의 선율과 장단 반주 음악을 유지하면서 전자음악곡으로 재해석해 현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가 '단오 대목' △흥보가 '화초장 대목' △적벽가 '군사 설움 대목' △수궁가 '토끼 배가르는 대목'으로 구성되며, △사랑가 △박타령 △새타령 △범파종류 등 연결 구성으로 공연 전체의 흐름과 완성도를 높였다.

본 공연과 함께 '송년풍류 즐기기' 프로그램도 운영. 공연 시작 한 시간 내인 오후 2시부터는 국악으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 '로비 음악회'와 함께 관람객을 위한 다과가 마련되고, 공연 종료 후에는 동지(冬至)의 상징성을 반영한 꽃 나눔 행사와 2026년 신년 달력 증정이 진행되어 송년의 따뜻한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전 연령 관람이 가능. 예매는 전화(063-620-2329), 카카오톡채널(삼당원 & 대화), 국악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